



홍순미 모던댄스니케이션 '94

SOON-MI HONG MODERN DANCENICATION '94

일시 / 1994.12.23 오후 7시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Modern Dance for Communication

불확정(Ideterminate)의 과거는 모호(Ambiguity)한 현재를 수태한 채 불확실(The problematic)에의 산고를 두려워 한다. 제로섬게임에 자신을 팽개친 많은 이들이 이유없는 박탈감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더 많은 이들이 그들에 의해 또 영문없이 쓰러져 간다.

어디에서 시작된 불확정이며 어디로 가는 불확실인가....

불확실성에의 상황적 대안숫자는 의미를 상실한 채 빛바랜 무한 수식만을 양산하고,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해결해야 할 문제 그 자체보다 주어진 해결 방법의 선택에 힘겨워 한다.

내 작은 소우주의 엔트로피(Entropy)는 자꾸만 저에너지로 침몰하고 우리 배회하는 진실은 익명의 커뮤니케이션에 자꾸만 익숙해져 가는데

이제는 해결(Solution)의 몸짓을 던지고 싶다.

아니, 해결을 위한 내 작은 소우주를 구성하고 싶다.

우선은 무대를 열고... 우리를 열고.... 그리고 무너져간 이들의 영혼을 열면서...

나의 춤이 치유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입증 될 때까지 나의, 아니 우리의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내 영혼의 Black hall이 Big bang 하는 그날 까지



ENTROPY '94

에너지 및 호흡법을 응용한 몸풀이와 문체제기의 구성동작을 연계시켜 신체적 표현을 통한 현실세계의 엔트로피적 상황을 형상화 해 본다. 즉, 개개인의 신체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이용하는 물리적 에너지양의 점진적 상승이 94년의 현실을 상징하는 갈등지향적 집단에너지로 표출되어진다.

부정적 그리고 선정적 무대언어들로 표현될 94년의 상황을 우선은 함께 아파하는 몸짓으로 나타내본다.

단, 1부의 아픔은 2부에서의 해결을 위한 듀엣과 3부의 진혼과 치유를 위한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DUET FOR SOLUTION

1부의 전체구성원들이 표현한 현실세계의 엔트로피는 불확정성과 모호성 그리고 불확실성에 기인 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이를 천체물리학 혹은 이론물리학의 가설인 Big bang의 불확정성에서 부터 사회(심리)학이나 커뮤니케이션학의 정보불확실성개념까지 포함된 사회병리의 차원으로 묘사한다.

2부에서는 이로인해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차원에서 듀엣이 구성된다. 우주생성의 베일에 대한 막연한 당혹감이 표현되는가 하면 정신과 육체의 조화 혹은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희노애락과 공동체의 역학관계가 제시된다.

궁극적으로는 해결의 실마리일 수도 있는 진실추구를 위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두사람의 수렴(Convergence)적 동선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Nonverbalcommunication)으로 관객에게 소구되어진다.



REQUIEM '94

무대는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로 변모한다. 무수한 죽음들이 다만 침몰 할 뿐 결코 되돌아 올 수 없는 그곳에는 소리없는 절규의 압축만이 무환순환되고 시간과 공간은 또 하나의 생명을 차거운 은하계의 한 작은 행성으로 띄워 보낸다.

그 생명의 주인공인 무대위의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 또 때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주연배우와 엑스트라의 교차역할을 부여 받으며 종막의 순간을 애써 부인하려 한다.

3부의 어둠이 제시하는 의미는 치유를 위한 레퀴엠이며 무대의 그들과 관객은 이곳의 침울의 배회자가 아닌 커뮤니케이션 참여자의 자격으로 서로를, 스러져간 많은이 들을 부둥켜 안는 역할을 부여 받는다.

태초의 빛이 어둠이었듯이 최후의 어둠이 빛임을 종연과 함께 새삼 느끼며.....



홍순미(洪淳美)

- 1964년 부산생
- 동래여자고등학교 졸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 졸
- 럭키창작무용단원('85~'87)
- 홍순미 무용스튜디오 대표(현)
- 부산여자대학 무용콩쿨 최우수상('80)
- 럭키창작무용단 공연 "황금가지" 외 다수 출연('85~'87)
- 제5회 현대무용신인발표회 안무,출연('88)
- 부산현대무용단 창단공연 안무,출연('88)
- 공간무용의 밤- 안무와 즉흥시리즈- 안무,출연('89)
- 제11회 대한민국 무용제 출연('89)
- '홍순미의 춤' 월간제주 초청공연('89)
- 국제현대무용제 출연('90)
- 서울 ADF 참가('90)
- 울산,울주, 공단진흥회 초청공연('90)
- 부산젊은춤꾼9인전 안무, 출연('91)
- 제1회 대구무용제 "바람의 말" 출연(대상,'91)
- 동경 ADF 참가('91)
- 춤의해 "젊은 춤꾼들의 봄잔치" 안무,출연('92)
- 부산무용제 출연(은상,'92)
- 정귀인과 부산현대무용단 전국순회공연('92)
- 국제현대무용제 출연('93)
- 정귀인 '오늘의 춤' 출연('94)
- 부산현대무용단 공연 안무,출연('88~'94)
- 홍순미의 춤 개인전('94)